

“법치는 살아있다... 탄핵·구속으로 이어지길”

尹 체포영장 집행 지켜본 시민들
광주역·터미널 등 TV 속보 집중
체포소식에 손 맞잡고 기쁨 표출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돼 다행”
“혼란·사회적 갈등 수습을” 염원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에 답답했는데, 드디어 체포됐다고 하니 속이 시원하네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은 ‘법치는 살아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5일 오전 찾은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로 붐볐다. 각기 다른 목적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터미널 내 TV에서 전해진 뉴스 속보에 집중했다.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다.

10시33분께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소리를 높였다. 눈물을 글썽이는 시민도 있었다.

천안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김모 씨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광주 시민들이 15일 광주수정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시청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럼 흐지부지 끝날까 봐 불안한 마음에 체포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TV 앞에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며 “체포 절차가 물리적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80·90년대 계엄령을 경험하면서 생겨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었다”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윤

대통령이 제대로 처벌받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지운(28)씨는 “비상계엄 이후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밤을 뽕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체포 이후 탄핵과 함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 구속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북구 중흥동 광주역 대합실에서도 열차에서 내린 많은 시민이 TV를 통해 대통령 관저의 상황을 지켜봤다.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야 발걸음을 옮겼다.

시민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던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적절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

구했다.

이윅희(58)씨는 “지난 1차 체포가 무산됐을 때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다.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어수선한 탄핵 정국이 하루빨리 수습돼 국가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희(28)씨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다행히 체포가 이뤄지게 됐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절히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체포가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계엄 선포로 야기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염원했다.

대학생 김자은(23)씨는 “오늘은 대한민국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을 확인한 날”이라며 “앞으로의 절차도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어수선한 탄핵 정국이 빨리 수습돼 안정된 사회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성아·윤준명 기자

경찰 ‘김성훈 차장,尹 조사 끝나면 체포’... 경호처 지휘부 수사 집중

비상계엄 사태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데 이어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사진)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 중 ‘윤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강



경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오늘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5·18 단체 “尹 체포, 민주주의·헌법질서 회복 전환점”

“사법부 흔들림 없는 공정성” 촉구

12·3 계엄사태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43일 만에 체포된 것을 두고 오월단체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는 헌법질서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사법 집행은

정의와 법치의 회복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범죄 혐의자는 대통령의 직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다”며 “그의 불법적 권력 남용과 권위주의적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월단체들은 사법부의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정의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체포는 개인의 범죄를 단죄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와 헌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국민적 의지와 사법 정의의 확인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온 윤 대통령의 모든 행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사법부는 흔들림 없는 공정성과 정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새오월어머니집도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광주비상행동’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에 이어 잔당들의 발본색원을 요구하고 불법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민헌기 기자

HANIL EXPRESS GROUP
HANIL EXPRESS FERRY

완도·제주항로 다시 돌아온 완도 오전출발 카페리

골드스텔라호 취항!

2025년 1월 15일 첫 운항!

최단거리 항로 / 운항시간 2시간 30분

주몽채 회장
(주)송죽레저관광
(유)현대관광

국내 역대 최고급 카페리

완도발 오전 09:20 출항
제주발 오후 16:00 출항

- 여객정원 948명
- 차량정원 343대 (승용기준)

해외여행,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송죽레저관광 T. 064) 747-8000 F. 064) 747-2590 H. 010-6865-7000

현대관광 T. 061) 245-0091 (목포) F. 061) 245-0309 (목포)